



金再雄
金永成



金三道
尹二祚



崔性觀
李康浩

金剛杵

號三十二第

卷頭言

金剛杵는梵語의 伐折羅(Vajra)라 原來 印度의 兵器인대 密宗에서 그이 뜻을 비워서 辟利한 智慧가 煩惱를 끊고 惡魔을 摧伏함을 衆徵함이니 「金剛杵」가 한번나매 마땅히 모든 煩惱가 斷絶되고 衆魔가 自취를 감출지어늘 「金剛杵」가 난지 여러 星霜을 거듭 하였으되 아직까지 煩惱가 奈天하고 魔徒가 滿地함인 어찌인고 金剛杵를 마땅히 鍛鍊하고 淬砺하여서 受苦衆生을 爲하여 本務를 다할진지

(근해)